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화촬영지로 '각광'

ACC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상류사회' 개봉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들이 8월에 잇따라 개봉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에 따르면 ACC 극장1에서 촬영한 실화첩보극 '공작'이 지난 8일 개봉해 5일 동안 2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ACC에서 촬영한 장면은 2005년 실제 있었던 남한의 가수 이효리와 북한의 무용수 조명애가 함께 찍은 한 휴대폰 광고 촬영장을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당시 광고에 실제로 출연했던 이효리씨가 '이효리' 역에 특별 출연해 개봉 전부터 큰 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촬영된 영화 '공작'의 한 장면. 남한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만나는 장면이 연출됐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제를 불러모았다. CF 장면이 촬영된 ACC 극장1은 한 면에 빅도어를 열어 실내의 공간을 확장해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가변형 블랙박스 형태의 공연장이다.

윤종빈 감독이 휴대폰을 잡은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실화극이다.

아울러 ACC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로비에서 영화 상류사회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하이브미디어코프 제공

파크, 문화장조원, 예술극장, 아시아문화광장 등에서 촬영한 변혁 감독의 영화 '상류사회'도 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해일, 수애, 이진옥 주연의 이번 영화는 육망으로 얼룩진 부부가 아름답고도

추악한 '상류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미술관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올해 1월 5일간 ACC 곳곳이 촬영 무대가 됐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보존건물

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고, 독특한 건축 공간들을 갖추고 있어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촬영 문의가 많다"며 "영화의 흥행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전국에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문범강 교수가 들려주는 '북한미술'

23일 시민과 함께하는 김넷과 예술특강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에 북한미술을 소개하는 문범강 조지타운대 교수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연을 선보인다.

오는 23일 오후 6시30분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김넷과'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 미술 전시기획 배경과 조선회화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문 교수가 집필한 저서 '평양미술, 조선

화 너는 누구냐' 북 사인회까지 곁들일 예정이다.

최근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작품 해포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시 설치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문교수 또한 베이징 소재 만수대장작사 작품을 비롯한 북한의 집체창작품 22점을 선보이는 색션의 큐레이터로서 분주하게 전시를 준비하는 중이다.

문 교수는 2010년 처음 북한미술을 접

했을 당시의 감격과 소회를 비롯해 국내의 창작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북한미술의 창작소와 미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작가들의 생활상, 창작기관의 특성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북한만의 다양한 예술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서양화가로 출발해 조선회화를 연구하게 된 배경과 급변하는 현 정세의 흐름에 따른 한반도 예술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깊은 시각으로 다각화되는 예술의 기능까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문의 062-229-3355. /이연수 기자

'몸·사랑·돈' 인문학 세가지 키워드 고미숙, 오늘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인문학 강좌로 16일 오후 3시 고전평론가 고미숙의 '우리시대 인문학의 세가지 키워드' 강의가 진행된다.

고미숙 고전평론가는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삶 속에서 잃어가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몸, 사랑, 돈'을 주제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철학 담론으로써 인문학에 더해 가장 중요하지만 잘 다루지 않는 우리 몸을 육체와 정신의 측면에서 동의보감을 통해 살펴본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로 시야를 확장해 자본주의 측면에서 인간의 탐욕과 사회구성 원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미숙은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문학 고전시가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공동체 '수유+너머'를 창립했고, 관심 영역을 넓혀 인문의역학 연구소 '김이당'을 설립했다.

저서 및 방송, 강연을 통해 대중의 시선에서 인문학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



어 대중 인문학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 대상으로 수강료는 무료다. 오는 9월에는 조송식 조선대 교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5390. /이연수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티켓 오늘부터 판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16일부터 소리축제 유료공연을 대상으로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

17회를 맞은 올해 소리축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16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소리 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서 공연정보를 확인한 뒤 티켓 구매 사이트로 이동하면 된다. 조직위는 티켓 예매와 함께 다양한 이

벤트를 진행한다.

소리축제가 추천하는 메인 공연 티켓을 31일까지 JB카드·광주은행카드를 결제하면 반값에 살 수 있다.

조기 예매 이벤트 공연은 ▲ 개막공연 소리판타지(Sori Fantasy) ▲ 판소리 다섯바탕 김경호(적벽가)/김세미(춘향가)/박성희(수궁가)/장문희(심청가)/김수연&강경아(흥보가) ▲ 국악방송 공

동기획산조의밤(허윤정·이용구·이태백·김정만) ▲ 어린이공연 아홉 번 사는 고양이(10월 3일 한정) 등이다.

23일까지 온라인 티켓 예매지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대명리조트 변산 숙박권(2인)과 대명리조트 변산아쿠아월드 이용권(25인·1인 2장)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